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3일 화요일 음 11월 25일 (2월)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0%
30%	성산	0%
30%	고산	0%
30%	서귀포	0%

주간예보 &lt;문의 ☎ 국번없이 131&gt;

내일 대체로 맑음 2/14°C  
모레 구름많음 10/17°C

## 대체로 흐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7-8°C, 낮 최고기온은 9-12°C로 예상된다. 새벽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해뜰 07:39 해설 17:47 달뜰 02:50 달설 13:05  
물때 만조 07:58 간조 00:23 18:18 13:52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데스크칼럼



고 대로

편집국장

올해 제주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국동 시지방선거와 제주 제2공항 환경영 향평가서 초안 심의 등 도정과 지역의 향방을 가를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 국동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제주 도정과 교육 정책의 기틀을 중대한 분기점이다. 지도자의 판단과 선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결코 가볍지

## 기로에 선 제주, 도민 선택이 미래를 가른다

않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깊은 혼란을 남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교훈을 제주 현실에 비춰 냉정하게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역시 중 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10년 넘게 친반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도민 사회의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 주년을 맞는 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와 '국제자유도

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출범 이후 제주에는 행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됐다. 중앙 부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국제자유도 시 전략이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면 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경훼손 등 부작용 역시 뒤따랐다. 자치 권한의 확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개발과 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공유됐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이런 점에서 특별자치 20년은 성과를 자축하기보다 그 결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한계를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제주의 현재를 돌아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제주는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과 최고 수준의 아파트 가격, 경기 침체

와 청년층 유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온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각각은 개별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맞물리며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접경은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내려지는 판단과 결정은 그 결과에 따라 도민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도, 반대로 상당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끝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제주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구조적 침체가 더욱 깊어질지는 올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들이 이어지는 2026년인 만큼, 그 어떤 선택도 가볍게 내려져서는 안 된다.

## 월드뉴스

트럼프 '군사타격' 가능성 vs 이란 "즉각 보복"

중동 정세 다시 요동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이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이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며 강력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고, 이란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보복하겠다고 맞섰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마코 류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 고위 참모진으로부터 이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이란 당국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해 여전 차례 경고



지난 9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대가 거리에서 불을 피운 모습. 연합뉴스

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 군사·민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추가 경제 제재, 군사 타격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즉각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부는 군사 타격에 대비한 병력 이동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 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hallala.com>e-mail: [hl@hallala.com](mailto:hl@halla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기 0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감귤모목

▲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 천혜향 2년생 3년생

▲ 궁 천 3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탈나봉

##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강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보유



##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탈나봉
- 미니몬 ● 제라몬



##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 가능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입니다.  
국립종자원에 생산, 축적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에 생산, 축적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에동 1831-2번지  
풀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강정종묘  
종남농장

신 품종  
우 량 묘  
포 트 묘

제 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귤, 유라조생, 레몬.

## 실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귤, 유라조생, 원터프린스.

주문전화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